

# 무용전공 대학생의 무용참여동기와 탈동기화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김 현 남\*

I. 서 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 의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 1.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무용에 참여하고 지속해왔지만,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이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용에 대한 학습동기가 저하되거나 심한 경우 무용에서 중도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오랜 기간 동안 무용을 해왔지만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으로 지속적인 동기유발의 부재로 인한 정체성 상실 등이 있다는 연구결과(이정선, 2006)를 보더라도 무용전공자들의 참여를 지속시켜주고 탁월한 수행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동기'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특히 무용이라는 장르적 속성을 고려하였을 때, 학습자의 동기 수준은 단순한 개인의 학업 성취 뿐 아니라 성공적인 공연수행

\* 본 연구는 2012 한국체육대학교 자체학술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한국체육대학교 생활무용학과 교수, hnkim1127@naver.com

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기에 대한 이해와 함께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차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Alderman(1976)은 동기란 모든 행동에 대하여 실행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스위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정서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인간의 행동은 반드시 목적을 추구하는데, 동기란 이러한 행동을 추구하도록 하는 시발점이 되며 개체가 목표로 접근하도록 하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용전공자들이 왜 무용에 참여하고자 하는지, 또 왜 지속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여러 연구를 통해 무용참여동기의 요인이 밝혀져 왔다. 정명숙(1998)은 무용수의 참여동기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 주위타자 권유, 매스컴의 영향, 체력/건강, 재미/즐거움, 지각된 유능성, 여가활동, 성취/지위, 학업부진/진학, 도전 등 총 10개의 참여동기 영역을 도출하였다. 김광범(2007)은 무용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무용참여동기를 즐거움, 심리, 장래-자기계발, 신체조형, 권유-내적규제, 무동기 등으로 밝혀내었으며, 이지선(2007)은 무용동기의 구성요인을 흥미 및 호기심, 자기표현 및 과시, 재능 및 적성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렇듯, 무용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데에는 강한 심리적 힘이 존재하며 이러한 욕구나 충동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이 존재하게 된다.

그렇다면 동기의 지속력은 어떨까? 우리는 분명 어떠한 일을 하던 지속시키는 힘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듯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화되는 현상을 탈동기화라고 할 수 있다. 탈동기화(demotivation)는 동기를 약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들로 동기가 완전히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무동기화(amotivation)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무동기화가 아무런 흥미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탈동기화란 동기가 있다가 어떠한 영향으로 인해 동기의 일부가 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주은(2012)은 탈동기화의 예를 어려서부터 꾸준히 해온 영어공부가 시험에서 최하위권 성적을 받은 후 영어공부가 갑자기 싫어진 경우에 비교하기도 하였다. 문화실(2011)은 탈운동동기란 운동행동을 선택, 실천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에너지가 감소된 상태로 운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 또

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감소된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탈운동동기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개인적 배경, 교육수준이나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 성격, 태도, 자기효능감 등의 심리적 요인 등이 있다.

무용전공생들의 참여동기를 높이고 탈동기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여러 방안들이 연구에 의해 도출되어 왔으며, 그 중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로 부각되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인 자기효능감은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 뿐만 아니라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Bandura의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Lev, 1997). 자기효능감은 현재의 행동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용전공 대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므로, 대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는 자기결정성 동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 그러나 대학입시를 통해 무용전공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비해 낮은 자기효능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무용과 입학'이라는 목표의식을 지지해주고 지속시켜주는 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무용을 시작하게 된 계기 중 부모나 교사의 권유에 의해서가 많으며 대학입시라는 큰 목표만을 생각하며 학업레이스를 펼치다가, 대학입학과 함께 성인초기에 들어서면서 자기결정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진로구축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무용전공생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대다수의 대학생들의 불안수준은 높아져 간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급변하는 사회구조로 인하여 진로 선택의 어려움이 높아져 가기 때문이다. '입사지원서가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탈락'의 줄임 말인 '서류광탈'이란 취업신조어가 생겨난 것만 보더라도 대학생의 진로설계에 대한 어려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다. 특히 타 학문분야에 비해 취업과 진로선택에 있어서 여러 제약이 존재하는 예술계 대학생들의 고민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해 진로 정체감이 저하되거나 이탈하는 경우도 속속 볼 수 있다. 뛰어난 무용전공자가 되겠다는 목표의식과 자신감을 가지고 무용을 시작했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고 다른 진로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무용 전공생으로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넓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저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고, 이는 결국 무용에서 탈동기화 혹은 중도탈락의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서 말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이론을 진로와 직업세계에 확장하여 적용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주어진 진로와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etz & Hackett, 1981). 여러 연구들에 의해서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전체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김선중, 2009; 이순주, 2009; 박중길, 2006),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그 자체로 행동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인지적 요인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손은령, 손진희, 2005; 한주옥, 200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중요성과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무용분야에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신체적 자기효능감 혹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무용 및 스포츠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용참여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혹은 무용 탈동기화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그리고 무용참여동기와 탈동기화 간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검증한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무용전공자들의 무용참여동기, 무용 탈동기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각 요인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무용에서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함양의 중요성을 시사해줄 수 있는 간명성과 설명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무용전공생들의 동기유발과 함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목표설정에 대한 뚜렷한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최근 무용학의 역동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본 연구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무용전공 대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탈동기화 현상을 방지하고 참여동기를 높여주기 위한 전략 중 진로자기효능감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무용교육에 대한 동기 유발을 높여줌으로써, 무용참여 및 최고수행(peak performance)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오랜 기간 지속해왔던 무용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줄 수 있는 동기와 한편으로 무용에서의 중도탈락을 유발하게 되는 탈동기화 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이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무용참여동기와 무용 탈동기화,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무용전공 대학생의 무용참여동기와 무용 탈동기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무용참여동기와 무용 탈동기화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무용 탈동기화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무용참여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마지막 다섯째, 무용참여동기와 무용 탈동기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무용전공 학생과 대학원생들로 비확률 표본추출 중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총 137명이다. 연구대상자들은 무용전공 강의 시간을 활용하여 설문내용에 응답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156부 중 응답이 누락

www.kci.go.kr

〈표 1〉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구 분		인원(명)	비율(%)	총인원(명)
성별	여	128	93.4	137
	남	9	6.6	
전공	한국무용	69	50.4	
	발레	30	21.9	
	현대무용	38	27.7	
경력	3년미만	10	7.3	
	3년이상 - 6년미만	50	36.5	
	6년이상 - 8년미만	39	28.5	
	8년이상 - 10년미만	16	11.7	
	10년 이상	22	16.1	
학년	1학년	38	27.7	
	2학년	32	23.4	
	3학년	37	27.0	
	4학년	21	15.3	
	대학원생	9	6.6	

되거나 불성실한 답변 19부를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들 18세부터 27세까지의 연령이며 여학생은 128명(93%), 남학생은 9명(7%)으로 나타났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로, 무용참여동기 30문항, 무용 탈동기화 21문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5문항, 일반적 특성을 묻는 4문항 등 총 8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설문문항이 개발되어지는 과정에서 최적의 평정척도로 개발되었다고 판단되었기에, 원 설문지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사를 통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에 대한 수정작업이 병행되었다.

### 1) 무용참여동기

무용참여동기는 김광범(2007)의 '무용 전공학생들의 참여동기 측정 도구 개발 및 참여동기요인 비교·분석 연구'에서 도출된 7요인 33문항을 토대로, 검사도구

www.kci.go.kr

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재검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은 각각 즐거움, 무동기, 자기계발, 권유, 신체조형, 공연, 심리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 설문지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4이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즐거움 요인에서 3문항이 삭제되어 본 연구에서는 7요인 30문항의 설문을 이용하였고, 신뢰도 계수는 .72로 나타났다.

## 2) 무용 탈동기화

무용 탈동기화를 측정하기 위해 문화실(2011)의 '탈운동동인의 본질탐색과 측정도구 개발 연구'에서 도출된 탈운동동인(Exercise Demotivation Scale) 요인을 무용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조사도구의 원 설문지에서는 운동의욕, 시간활용, 운동자신감, 감정, 운동재미의 5요인 22문항이었으며,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고안되었다. 원 설문지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8이며, 본 연구에서는 .71로 나타났다. 무용 탈동기화를 측정하는 검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 1개가 제외되어 총 21문항이 사용되었으며, 각각의 요인은 무용의욕, 시간활용, 무용자신감, 감정, 무용재미이다.

##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Betz와 Vuyten(1997)이 구성한 진로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를 이은진(2001)이 번안한 것을 재수정한 주명진, 김정남(201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으로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인의 자기효능감 기대를 진로결정효능감으로 정의내리고 이를 수량화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직업 정보 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이다. 진로자기효능감 척도는 10단계 평정 척도로서 자신감을 0에서 9점으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etz와 Vuyten(1997)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3, 이은진(2001)의 연구

www.kci.go.kr

에서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9로 나타났다.

### 3. 조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2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사전에 해당 대학의 무용과에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설문은 연구자가 직접 설문내용을 설명한 후 실시하였으며, 3가지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25분 정도로 나타났다.

설문을 실시하기 전 무용전공 교수 1인과 무용심리학전공 박사 2인이 모여 요인분석을 통해 해당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내용분석을 위해서는 무용경력 15년 이상의 무용전공자 2인에게 문항내용과 수준 등에 대하여 다단계검토를 거친 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세 변인간의 관계를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무용참여동기와 탈동기화, 무용참여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탈동기화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무용참여동기와 탈동기화, 진로자기효능감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18.0과 AMOS 7.0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무용전공 대학생의 무용참여동기, 무용 탈동기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기술통계 결과

137명의 무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용참여동기와 무용 탈동기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표 2).

www.kci.go.kr



〈표 2〉 측정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측정변인		평균±표준편차
무용참여동기	즐거움	3.40±.58
	무동기	3.26±.55
	자기계발	3.39±.61
	권유	2.88±.79
	신체조형	2.98±.74
	공연	3.45±.73
	심리	3.09±.62
무용 탈동기화	무용의욕	2.70±.73
	시간활용	2.90±.73
	무용자신감	2.77±.75
	감정	2.68±.75
	무용재미	2.61±.8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직업정보수집	4.78±1.10
	목표설정	4.90±1.17
	계획수립	4.76±1.27
	문제해결	4.78±1.18
	자기평가	4.98±1.21

무용참여동기 중 공연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그 뒤를 이어 즐거움, 자기계발 순으로 나타났으며 권유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많은 학생들에게 ‘공연’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무동기’ 또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결국 많은 학생들은 하고 싶다는 마음과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있다는 양가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용 탈동기화에 대한 분석 결과 시간활용과 자신감의 부족이라는 이유가 가장 높았으며 무용재미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즉, 무용연습과 공연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는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신감의 저하 또한 탈 동인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분석한 결과 자기평가나 목표설정에 비해 직업정보수집이나 문제해결 등이 낮게 나타난 것은, 뚜렷한 목표로 인해 무용을 지속해 온 대다수의 학생들이 직업 선택에 대한 정보나 대안책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변인들 간에 정적, 부적 상관관계

〈표 3〉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무용의욕	1																
시간활용	.634**	1															
무용자신감	.650**	.599**	1														
감정	.688**	.542**	.759**	1													
무용재미	.742**	.576**	.778**	.795**	1												
즐거움	-.330**	-.261**	-.373**	-.349**	-.400**	1											
무동기	.049	-.089	.067	.127	.132	.158	1										
자기계발	-.239**	-.161	-.324**	-.270**	-.288**	.651**	.311**	1									
권유	.313**	.188*	.236**	.303**	.371**	-.019	.545**	.081	1								
신체조형	.105	-.011	.077	.074	.157	.245**	.372**	.200*	.568**	1							
공연	-.169*	-.113	-.220*	-.235**	-.235**	.739**	.218*	.555**	.074	.303**	1						
심리	-.058	-.139	-.057	.010	.038	.527**	.298**	.327**	.486**	.580**	.507**	1					
직업정보수집	-.034	-.074	-.114	-.037	-.057	.253**	.124	.283**	.031	-.026	.177*	.190*	1				
목표설정	.037*	.002	-.038	-.006	-.063	.286**	.106	.319**	.103	.015	.203*	.256**	.840**	1			
계획수립	.042	.041	-.015	.012	-.027	.207*	.107	.228**	.227**	.054	.123	.290**	.821**	.847**	1		
문제해결	.065	.118	.090*	.132	.094	.179*	.053	.267**	.227**	.160	.149	.261**	.671**	.709**	.692**	1	
자기평가	-.005	.054	-.042	-.009	-.042	.250**	.096	.365**	.134	.079	.208*	.213*	.786**	.829**	.788**	.702**	1

\*p<.05, \*\*p<.01

(1=무용의욕, 2=시간활용, 3=무용자신감, 4=감정, 5=무용재미, 6=즐거움, 7=무동기, 8=자기계발, 9=권유, 10=신체조형, 11=공연, 12=심리, 13=직업정보수집, 14=목표설정, 15=계획수립, 16=문제해결, 17=자기평가)

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무용참여동기 중 ‘즐거움’은 탈동기화의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계발’, ‘공연’요인은 탈동기화와 부적상관을 ‘권유’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무동기’와 ‘신체조형’요인은 탈동기화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무용참여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하위요인 중 ‘무동기’와 ‘신체조형’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참여동기 중 ‘자기계발’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무용 탈동기화 간에는 ‘무용의욕’과 ‘목표설정’, 그리고 ‘무용자신감’과 ‘문제해결’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이 요인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인 의미를 보이지는 않았다.

## 2. 무용참여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무용참여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용참여동기의 7가지 하위요인으로 인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직업정보수집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 외 목표설정( $F=3.388, p=.002$ ), 계획수립( $F=3.580, p=.002$ ), 문제해결( $F=3.136, p=.004$ ), 자기평가( $F=3.359, p=.003$ )에 대한 통계값은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무용참여동기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각 변인의 설명력은 목표설정 16.2%, 계획수립 16.9%, 문제해결 15.1%, 자기평가 16%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종속변인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의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먼저 목표설정의 경우 참여동기 중 자기계발( $\beta=.240$ ), 신체조형( $\beta=-2.40$ )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수립의 경우 참여동기 중 권유( $\beta=.295$ )와 신체조형( $\beta=-2.76$ )이, 문제해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동기( $\beta=-.231$ ), 자기계발( $\beta=.239$ ), 권유( $\beta=.271$ )가 유의수준 .05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평가의 경우 참여동기 중 자기계발( $\beta=.359$ ) 요인과 유

〈표 4〉 무용참여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관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변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B	SEB	$\beta$	t	p	B	SEB	$\beta$	t	p	B	SEB	$\beta$	t	p	B	SEB	$\beta$	t	p	B	SEB	$\beta$	t	p
(상수)	2,602	.745		3,492	.001	2,390	.766		3,122	.002	2,342	.830		2,822	.006	2,931	.772		3,797	.000	2,531	.789		3,207	.002
즐거움	.199	.288	.105	.689	.492	.235	.296	.118	.792	.430	.265	.321	.123	.825	.411	-.042	.299	-.021	-.139	.889	.020	.305	.010	.065	.948
무동기	.130	.217	.064	.602	.548	-.095	.223	-.044	-.425	.671	-.229	.241	-.099	-.950	.344	-.494	.224	-.231	-2.20	.030	-.272	.229	-.124	-1.19	.238
자기계발	.353	.212	.197	1.666	.098	.452	.218	.240	2.075	.040	.359	.236	.175	1.521	.131	.546	.220	.289	2.485	.014	.698	.225	.359	3.108	.002
권유	.012	.180	.009	.067	.946	.188	.185	.127	1.018	.311	.476	.201	.235	2.371	.019	.402	.187	.271	2.150	.034	.275	.191	.181	1.442	.152
신체조형	-.331	.172	-.224	-1.93	.056	-.373	.176	-.240	-2.12	.036	-.468	.191	-.276	-2.45	.016	-.077	.178	-.049	-.432	.666	-.201	.182	-.125	-1.10	.272
공연	-.088	.203	-.057	-.432	.687	-.088	.209	-.055	-.424	.672	-.189	.226	-.107	-.834	.406	-.012	.210	-.007	-.056	.955	.015	.215	.009	.069	.945
심리	.365	.234	.205	1.562	.121	.443	.240	.237	1.845	.067	.556	.260	.273	2.138	.034	.275	.242	.147	1.136	.258	.211	.247	.110	.853	.395
R <sup>2</sup>	.122					.162					.169					.151					.160				

의수준 .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무용참여동기와 무용 탈동기화와의 관계

무용전공 대학생의 참여동기와 탈동기화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용 탈동기화에 대한 무용참여동기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모든 변인에 대해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인되었으며, 통계값과 유의확률은 무용의욕(F=5.228, p=.000), 시간활용(F=3.935, p=.001), 무용자신감(F=4.961, p=.000), 감정(F=4.983, p=.000), 무용재미(F=7.791, p=.000)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무용의욕 22.6%, 시간활용 18.1%, 무용자신감 21.7%, 감정 22%, 무용재미 30.5%로 나타났다.

무용 탈동기화에 대한 무용참여동기의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첫째 무용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권유( $\beta=.391$ )가 유의수준 .01에서, 심리( $\beta=-.289$ )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간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무동기( $\beta=-.286$ )와 심리( $\beta=-.252$ )가 유의수준 .05에서, 권유( $\beta=.430$ )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셋째, 참

〈표 5〉 무용참여동기와 무용 탈동기화 관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변인	무용 탈동기화																								
	무용의욕					시간활용					무용자신감					감정					무용재미				
	B	SEB	$\beta$	t	p	B	SEB	$\beta$	t	p	B	SEB	$\beta$	t	p	B	SEB	$\beta$	t	p	B	SEB	$\beta$	t	p
(상수)	3,583	459		7.814	.000	4,135	477		8.663	.000	3,883	472		8.226	.000	3,369	473		7.124	.000	3,406	485		7.017	.000
즐거움	.145	.123	.145	1.182	.240	-.312	.185	-.247	-1.69	.094	-.443	.183	-.348	-2.43	.017	-.417	.183	-.328	-2.28	.024	-.607	.187	-.439	-3.25	.002
무동기	-.172	.144	-.146	-1.19	.234	-.365	.139	-.268	-2.63	.010	.034	.137	.025	2.48	.005	.089	.137	.065	.645	.520	.041	.140	.027	2.93	.770
자기개발	.060	.105	.062	.570	.570	.000	.135	.000	-.002	.998	-.240	.134	-.198	-1.80	.074	-.152	.134	-.125	-1.14	.259	-.131	.137	-.100	-.960	.339
권유	.362	.110	.391	3.286	.001	.403	.115	.430	3.514	.001	.181	.113	.191	1.596	.113	.224	.114	.236	1.964	.052	.280	.116	.271	2.409	.017
신체조형	-.111	.130	-.094	-.858	.392	-.020	.110	-.020	-.180	.857	.040	.109	.040	.372	.710	-.046	.109	-.046	-.426	.671	.042	.111	.038	.376	.708
공연	-.142	.133	-.106	-1.07	.287	.242	.128	.238	1.887	.061	.124	.127	.120	.976	.331	.011	.127	.011	.086	.931	.058	.129	.052	4.48	.655
심리	-.360	.177	-.289	-2.03	.045	-.289	.150	-.252	-2.00	.048	.009	.148	.008	.061	.951	.132	.148	.109	.888	.376	.148	.152	.113	.975	.332
R <sup>2</sup>	.226					.181					.217					.220					.305				

www.kci.go.kr

여동기 중 즐거움은 무용자신감( $\beta=-.348$ )과 감정( $\beta=-.328$ )에 유의수준 .05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무용재미는 유의수준 .01내에서 즐거움( $\beta=-.439$ )과 유의수준 .05에서 권유( $\beta=.271$ )와 각각 통계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무용 탈동기화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무용 탈동기화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무용 탈동기화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입력방법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무용 탈동기화 중 '무용의욕'을 제외한 4개의 하위요인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변인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시간활용 7.5%, 무용자신감 6.9%, 감정 5%, 무용재미 4.7%로 나타났다. 표 5에 의하면 직업정보수집( $\beta=-.430$ )은 유의수준 .05이내에서 시간활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정보수집( $\beta=-.380$ )과 문제해결( $\beta=.283$ )은 유의수준 .05에서 무용자신감에, 문제해결( $\beta=.312$ )은 유의수준 .05내에서 감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 $\beta=.299$ )은 무용재미에 유의수준 .05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무용 탈동기화 관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변인	무용 탈동기화																								
	무용의욕					시간활용					무용자신감					감정					무용재미				
	B	SEB	$\beta$	t	p	B	SEB	$\beta$	t	p	B	SEB	$\beta$	t	p	B	SEB	$\beta$	t	p	B	SEB	$\beta$	t	p
(상수)	2,743	.302		9,073	.000	2,857	.297		9,605	.000	2,906	.307		9,464	.000	2,593	.310		8,368	.000	2,652	.333		7,957	.000
직업정보수집	-.097	.117	-.146	-.829	.409	-.286	.115	-.430	-2.49	.014	-.260	.118	-.380	-2.19	.030	-.125	.120	-.183	-1.05	.298	-.066	.129	-.091	-.517	.606
목표설정	-.155	.126	-.248	-1.23	.222	-.054	.124	-.086	-.434	.665	.013	.128	.019	.098	.922	-.030	.130	-.047	-.235	.815	-.133	.140	-.192	-.952	.343
계획수립	.154	.104	.289	1.484	.140	.105	.102	.183	1.031	.305	.080	.106	.136	.761	.448	.033	.107	.055	.306	.760	.034	.115	.054	.298	.766
문제해결	.098	.081	.158	1.213	.228	.144	.079	.232	1.815	.072	.181	.082	.283	2.212	.029	.200	.083	.312	2.412	.017	.205	.089	.289	2.301	.023
자기평가	-.005	.103	-.008	-.046	.963	.095	.101	.156	.941	.348	-.041	.104	-.065	-.393	.695	-.055	.105	-.088	-.525	.600	-.043	.113	-.064	-.377	.707
R <sup>2</sup>	.036					.075					.069					.050					.047				

## 5. 무용참여동기, 무용 탈동기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인과관계

무용참여동기, 탈동기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증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hi^2$  216.02,  $p=.001$ , CFI=.933, GFI=.902, TLI=.948, RMSEA=.069로 모형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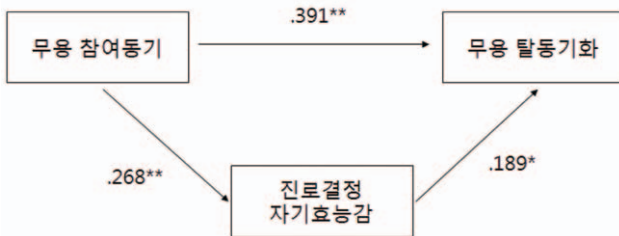
연구모형이 적합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로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첫째 무용참여동기는 탈동기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경로계수는 .39로 나타났다. 둘째, 무용참여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경로계수 .27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경로계수 .19로 무용 탈동기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7〉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지수	$\chi^2(p)$	df	CFI	GFI	TLI	RMSEA
적합도	216.02(.001)	69	.933	.902	.948	.069

〈표 8〉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변수	경로	경로계수	S.E.
1	무용참여동기→무용 탈동기화	.391	.537
2	무용참여동기→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68	.178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무용 탈동기화	.189	.082



〈그림 1〉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 $p<.05$ , \*\* $p<.01$ )

## IV. 논 의

무용전공생들의 증가되는 수만큼,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무용에 대한 탈동기화 현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과연 무용전공생들은 어떠한 이유로 무용에 참여하고 지속하며, 또 어떠한 이유로 동기가 저하되는 현상을 겪는지, 그리고 이들 관계와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가지는 고민거리 중 1위가 ‘취업과 불확실한 미래’로 꼽히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고민은 무용계에서도 마찬가지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고, 실제로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무용에의 참여를 저하시키거나 전공을 바꾸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무용참여동기와 탈동기화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는 세 가지 변인에 대한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들 변인 사이에 상당한 상호작용과 연관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세 가지 변인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후 각 변인들의 설명력을 예측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공 대학생의 무용참여동기, 탈동기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는 상관의 정도나 상관의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지만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 상황에서 학생들의 동기를 분석할 때 나타나는 동기와는 대조적이지만, 무용전공 대학생들에게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탈동기화에 대한 접근도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과정, 그리고 이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개인적 특성과 맥락적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손은령, 손진희(2005)는 진로장벽 변인은 진로결정 수준 및 불안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동기와 진로문제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변인이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무용전공생의 참여동기는 탈동기화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무용에 대한 욕구나 흥미, 만족감 등이 하기 싫은 마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무용참여동기에는 탈동기화 또한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완벽한 동기화 상태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에게 탈동기화가 지속된다면 무용학습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무용에서의 중도탈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동기와 탈동기 현상에 대한 사회적, 상황적 맥락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무용참여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무용참여동기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인에 대해 약 1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참여동기 중 '자기계발'이 목표설정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인효, 탁진국(2010)의 연구에서 직장인들의 자기계발 동기가 혁신행동과 직무열의, 목표설정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노지운(2008)의 연구에서도 자기계발은 먼저 자신의 내부에서 원인을 찾고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결국 이를 통해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과 실천, 방법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무용을 전공한 대학생들은 자신들만의 삶의 전략, 즉 자기계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진로에 대한 목표설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용참여동기 중에서 타인의 '권유'가 계획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나 교사의 역할에 의해 진로결정 및 진로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정다움(2012)의 연구에서 무용전공 학생들의 부모의 교육적 조력이 공연참여, 학습동기, 몰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효, 박현정(2013)의 연구에서도 무용영재를 판별하는데 부모의 관찰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박준희(2010)는 무용교사는 학생들의 내적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변인임을 밝혀내었다. 즉, 무용전공생에게 부모나 교사의 역할은 무용을 시작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며 이들의 역할에 따라 진로결정에 대한 효능감이 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기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요인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동기는 마음의 힘으로 주변 상황이나 맥락에 의해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김아영(2003)은 교실에서의 동기 연구에서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조절학습,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 성취목표지향성, 교사효능감 이론을 포함한 학생과 교사의 학업관련 동기 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박고운(2007)의 연구에서도 자율성 수준에 따른 네 가지 유형의 동기(내적 동기, 확인된 조절, 부과된 조절, 외적 조절)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진로 자기효능감에 의해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기와 행동 사이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접적 내지 간접적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용이 실천적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무용참여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탈동기화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셋째, 무용참여동기와 무용 탈동기화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동기가 탈동기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용참여동기는 무용 탈동기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설명력 또한 18~30%까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강한 마음의 힘으로 무용에 참여하였지만, 결국 이러한 마음의 힘이 탈동기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마지막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처럼 이들 간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하지만, 이 두 변인 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현상이라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참여동기 중 '권유'와 개인의 '심리' 상태는 무용의욕을 저하시키고 효율적인 시간활용에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즐거움'으로 인해 시작한 무용은 자신감, 감정상태, 재미를 저하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로는 무용참여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탈동기화는 실천적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 여겨진다. 즐겁고 공연하는 것이 행복하며 자기계발을 위

해서 무용에 참여했지만, 이러한 이유 속에서 결국 무용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감소될 수 있으며 결국 무용행동을 불규칙하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정적 무용행동의 강력한 예측인자인 탈동기화에 대하여는 심도 깊은 접근이 요청되며, 탈동기화를 이끄는 상황 맥락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무용 탈동기화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탈동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졌으며, 탈동기화에 대한 독립변인의 설명력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들을 살펴보면 '직업정보'는 시간활용, 무용자신감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며, '문제해결'은 무용자신감, 감정, 무용재미를 감소시키고 있다. 즉 대다수의 무용전공생들이 졸업 후 진로준비를 위해 직업정보를 조사하면서 자신감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 입학이 큰 목표로 차지하고 있는 고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대학 입학 후 진로지도에 대한 체계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의 대학에서 졸업생 및 예비졸업생 취업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해, 총체적인 진로지원에 대한 계획은 부족한 실정이다. 자신만의 '커리어 디자인'에 대한 체계성이 약한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안과 스트레스 등은 무용 상황에서의 자신감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무용전공생들의 심리상태와 적성분석을 통해 보다 다양한 방향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설계하며 준비하는 과정이 대학생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무용참여동기와 무용 탈동기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무용참여동기는 탈동기화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탈동기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혀냈다. 즉, 이 세 변인 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동기와 탈동기화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여러 심리적 변인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이 밝혀졌다. 김이지 외 4인(2011)은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내었으며, 박중길(2006)은 무용과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예언하는 변인으로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주명진과 김정남(2011)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불안과 진로결정 효능감이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밝혀내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중요성과 효과는 본 연구에서도 무용전공생의 참여동기를 강화시키고 탈동기화를 감소시키는데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무용전공 대학생의 무용참여동기, 탈동기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무용전공 대학생의 참여동기는 탈동기화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무용전공 대학생의 참여동기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무용전공 대학생의 탈동기화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무용참여동기, 탈동기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인과관계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참여동기와 탈동기화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무용참여동기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높아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탈동기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무용전공생의 진로목표와 준비행동을 위해 동기와 탈동기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과의 특성상 여성의 분포가 남성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비율이 약 90%로 나타났다.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다르다는 선행연구를 보더라도 추우

연구에서는 무용전공 남학생의 사례수를 더 많이 확보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재한 대학교가 서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수 있었으며 표본 집단의 사례수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무용전공생의 참여동기, 탈동기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추후 다양한 사회경제적, 심리정서적 변인에 대한 관계 검증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무용전공 대학생의 무용참여동기 및 탈동기화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며, 참여동기와 탈동기화 간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적 효과를 검증하여 변인들 간의 영향력과 경로를 확인하였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무용전공생들의 동기, 탈동기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분석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에게 아무런 동기 없이 무의미하게 학교생활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참여의 동기를 갖고 자발적이며 활력 있는 자세로 자신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면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수업태도 및 수업분위기는 진취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학교생활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적과 진로를 주체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Alderman, R. B. (1976). *Psychological behavior in sports*. Philadelphia: W. B. Saunders.
- 김광범(2007). 무용 전공학생들의 참여동기 측정 도구 개발 및 참여동기요인 비교·분석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 김선중(2009).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경북.
- 김아영(2003). 교실에서의 동기. 『교육심리연구』, 17(1): 5-36.
- 김이지, 정신영, 김지애, 김지윤, 이동귀(2011).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대처전략

- 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971-993.
- 노지윤(2008). 자기개발 담론과 삶의 경영자 : 〈SPL 성공 아카데미〉 모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6: 985-997.
- 문화실(2011). 탈운동동인의 본질 탐색과 측정도구 개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박고운(2006).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진로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박성익, 유경훈(2010). 초등학교의 성취목표 동기유형과 창의적 사고력, 창의적 인성 간의 관계분석. 『교육심리연구』, 24(1): 139-160.
- 박준희(2010). 무용수업에서 학습환경과 교사의 피드백 지각이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9(4): 361-372.
- 박중길(2006). 무용과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7(3): 47-60.
- 손은령, 손진희(2005). 한국대학생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7(2): 399-417.
- 이순주(2009).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및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이은선(2002). 초등학교 무용 특기·적성 교육활동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이은진(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미간행.
- 이인효, 탁진국(2010). 자기개발 동기가 혁신행동과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3(4): 605-633.
- 이정선(2006). 무용전공 대학생의 중도탈락의도 인과모형 분석.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미간행.

- 이지선(2007). 무용동기의 탐색적 요인분석.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이진효, 박현정(2013). 자녀의 무용재능 구성요인에 관한 경험적 탐색. 『한국무용 기록학회지』, 27: 105-124.
- 정다움(2012). 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조력과 무용학습 동기 및 몰입 관계분석,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정명숙(1998). 무용수들의 무용참여동기 심층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주명진, 김정남(2011). 대학생의 불안과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총』, 27: 157-174.
- 한주옥(2004). 여대생의 자기결정성 수준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etz, N. E., & Hackett, G.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 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399-410.
-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 Lev, E. L. (1997). Bandura's Theory of Self-Efficacy: Applications to Oncology. *Scholarly Inquiry for Nursing Practice*, 11(1): 21-38.

논문투고일	2013년	1월 15일
심사일		1월 16일
심사완료일		1월 20일

## Abstract

### The Relationship among Participation Motivation, Demotivation and Career Self-Efficacy of Dance Majors

Kim, Hyun-Nam  
*Professor of Dance*  
*Korea Sports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participation motivation, demotivation and career self-efficacy of dance majors. For this purpose, dance majors in the university located in Seoul was set as a population and then finally collected 137 by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he data process was performed by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affect demotivation. Secondly,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affect positively career self-efficacy. Thirdly, career self-efficacy affect positively demotivation. Lastly, there wa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was inspec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demotivation.

**keywords:** 참여동기(participation motivation), 탈동기화(demotivation),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self-efficacy), 무용전공생(dance majors), 대학(university)